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타당화

김 동 민[†] 박 현 진 김 지 훈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및 부산에 거주하는 749명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어판 YPI를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YPI의 전체 신뢰도는 $\alpha=.88$ 로 나타났으며, 세 요인들의 신뢰도는 .69 ~ .87로 Andershed 등(2002)이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YPI가 측정하고 있는 구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으로 예언된 세 요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점수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행행동경향이 높은 집단(행동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7개의 군집이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8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다. 이 군집들 중 YPI세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이 집단이 이론적으로 예언된 특성을 중심으로 비행행동 집단 및 정상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질적 집단은 자기에적 성향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대한 관심이 낮으며, 일탈적 행동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YPI가 일반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YPI의 10개의 하위척도들 중 3개는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그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가적 연구를 위한 방향 및 이 연구의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신병질, 정신병질 특성 척도(YPI), 군집분석

* 척도사용을 허락하고 체점에 도움을 주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이성진 소장님 외 주영림, 박소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김 동 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전화 : 02-820-5383, E-mail : dminkim@cau.ac.kr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범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예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를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다(Delteg & Levander, 1998; Farrington, 1992; Moffitt, 1993; Stattin & Magnusson, 1991). 성인 범죄자들 중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지칭하여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 한다. 정신병질이란 자기과시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조정하는 대인 스타일, 후회나 죄책감 등이 부족한 정서적 경험,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 스타일로 특징지어지는 성격적 한 형태를 일컫는다(Cleckley, 1976; Hare, 1991; Karpman, 1948; McCord & McCord, 1964; Millon, 1981).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이런 특성을 지닌 소수의 성인 범죄자들이 존재하며 또한 이들이 신뢰롭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예, Andershed, Gustafson, Kerr & Stattin, 2002; Gustafson & Ritzer, 1995; Pethman & Erlandsson, 2002).

최근, 성인 범죄자들에 대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군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Andershed, Kerr, Stattin, & Levander, 2002; Moffitt, 1993).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소수의 범죄 청소년들이 어린시절부터 행동장애와 심각한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Rogers,

Johansen, Chang, & Salekin, 1997; Smith, Gacono, & Kaufman, 1997), 약물사용(Mailloux, Forth, & Kroner, 1997; Murrie & Cornell, 2000) 및 폭력 문제를 빈번히 일으키고(Forth & Tobin, 1995; Smith et al., 1997), 학교에서 나쁜 품행과 공격적 행동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Edens, Poythress, & Lilienfeld, 1999; Murdock Hicks, Rogers, & Cashel, 2000), 상습적 폭력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높고(Brandt, Kennedy, Patrick, & Curtain, 1997; Gretton, McBride, Hare, O'Shaughnessy, & Hare, 1997),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음(Brandt et al., 1997; 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보여 주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 범죄자들보다 일찍 범죄를 시작하며(Brandt et al., 1997; McBride, 1998), 폭력의 재발생 정도도 높고(Gretton, 1998),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도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Brandt et al., 1997; Forth, Hart, & Hare, 1990).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일군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시작하는 시기, 공격성, 범죄행위의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다른 청소년 범죄자들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들 청소년 범죄자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비교될만한 성격적 특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Andershed et al., 2002b). 성인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개인은 대인적 차원에서 자기 우월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려 하며, 위선적 매력이 두드러진다(Harpur, Hakstian, & Hare, 1988). 또한 정서적 차원에서는 차감고, 죄의식이 없으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결여되어 있으며, 행동적 차원에서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성적 문란, 기생적 삶의 스타일 등을 보인다(Hare, 1998). 또한

Gustafson과 Ritzer(1995)는 정신병질적 특성이 범주적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차원적 실체로서 정상인에게서도 정도의 문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정상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이 높은 정도의 외현적 자기에 성향, 낮은 사회화 정도 및 사회적 정향성 등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정신병질의 대인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Andershed 등(2002a)은 정신병질의 세차원에서 분류된 정신병질 청소년 집단과 성인 정신병질 집단이 자기에 성격 척도, 사회화 척도, 그리고 사회적 정향성 척도상의 점수 패턴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åderman & Kristiansson(2004)도 정신병질의 세차원에서 분류된 정신병질적 비행 청소년들이 충동성, 단조로움 회피 성향, 사회화, 언어적 폭력성 및 신체적 불안반응 등의 척도에서 정상 비행청소년들과 다른 점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이러한 경험적 증거들이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이미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청소년기에도 타당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며 언제 발견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대답되어지지 않고 있다(Andershed et al., 2002b).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된 적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높은 잠재적 폭력성을 가진 청소년을 확인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일반 청소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Andershed 등(2002)이 개발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는 총 5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대인(Interpersonal), 정서(Affective), 행동(Behavioral)의 3가지 차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YPI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YPI는 자기보고를 통해 보다 능률적으로 핵심적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Psychopathy Check List: Youth Version(PCL: YV; Forth, Kosson, & Hare, 2003)가 있다. 이 척도는 청소년과의 면접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잘 아는 부모, 교사, 그 밖의 수용기관 등의 담당자들과의 면접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 기록들이 종합적으로 수집되어 평정에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실제, 이 도구를 활용하여 한 명의 청소년에 대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게는 3시간, 많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PCL:YV는 그 비능용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PCL:YV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면접 외에는 활용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크게 제한 받는다. 그러나 YPI는 비교적 이러한 제한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병질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YPI는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명백한 문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 핵심적 정신병질 특성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긍정 또는 부정 왜곡없이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간편하면서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신병질적 특성 연구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YPI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YPI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YPI가 측정하는 정신병질의 세구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 구인들상의 점수 패턴을 이용하여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분류를 시도해 볼 것이다. 끝으로 이런 집단 분류가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던 성격특성들(자기애, 사회화, 사회적 정향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런 과정은 우리나라 범죄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며, 청소년 범죄가 만성적인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부산의 고등학생(서울경기: 인문계 2곳, 실업계 1곳부산: 인문계 2곳, 실업계 2곳) 및 두 곳의 보호관찰소 수용생들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

소년들은 전체 749명으로 남학생 345명, 여학생 404이다. 이들 중 인문계 남학생은 203명이었고 인문계 여학생은 205명이었다. 실업계 남학생은 89명이었으며, 실업계 여학생 158명이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남학생은 77명, 여학생 17명이었다. 학년별로는 고1 201명, 고2 479명, 고3 31명, 기타 38명이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6.71세(표준편차 .839)이었다.

조사도구

정신병질 특성 척도(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YPI)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Andershed 등(2002)이 개발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이다. 총 50 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10개 하위요인에 각 5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 하위척도는 대인,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대인(interpersonal)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은 부정직 매력(dishonest charm), 자기과시(grandiosity), 거짓말(lying), 조종(manipulation)이고, 정서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은 무죄책감(remorselessness), 무감동(unemotionality), 냉담(callousness)이며, 행동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은 자극추구(thrill-seeking), 충동성(impulsiveness), 무책임(irresponsibility)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전적으로 그렇다) 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에 대한 기술로 얼마나 적절한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Andershed 등(2002)은 검사의 내적 합치도를 $\alpha=.88$ 로 보고하였다.

자기에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개발한 것으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남운, 2001). 이 검사는 지도력/권위, 자기 몰입/자기칭찬, 우월성/거만, 착취성/특권의식의 4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Emmons, 1987),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에 반대되는 문장을 나란히 제시하고 둘 중의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는 Raskin과 Terry(1988)가 기존의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으로 한수정(1999)이 번안하고,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남운(2001)이 타당화한 것이다. 정남운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8문항은 탈락시키고 32문항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40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정남운의 연구에서 40문항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KPDI 성격진단 검사(KIRBS Personality Diagnostic Inventory)의 사회화정도 척도 (socialization subscale)

KPDI 성격진단 검사는 한국판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KPDI에는 18개의 하위척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자극 추구 등의 반사회적 행동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화정도 척도(So)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정향성 척도(Marlow-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

사회적 정향성 척도는 Marlow과 Crowne(1960)이 개발한 것으로써 참, 거짓 문항 유형의 3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정향성이란 문화적으로 인정되고 지지받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의미한다(Marlow & Crowne, 1960). 본 연구에서는 Strahan과 Gerbasi(1972)이 10문항으로 만든 간편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이며,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지역 소년원생 13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결과, 내적 합치도 및 각 문항들과 척도총점과의 상관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절차

YPI 원 검사가 측정하려는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문항들을 연구자들이 먼저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영어영문학 박사과정생 2명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역번역된 문항들을 연구자들과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 및 교육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함께 검토한 결과, 한국어로 번역된 모든 문항들이 원검사의 문항들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과정에서 몇몇 문항은 한국어 표현이 어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연구자와 교육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다시 소폭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YPI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YPI 검사외에 자기애적 성격척도, KPDI의 사회화 척도, 그리고 단축형 사회적 정향성 척도를 포함한 질문지를 서울과 인근지역, 그리고 부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보호관찰소에 배포하였다. 검사는 각 기관의 담당 관계자들이 관리, 실시하였다. 검사기간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일주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11월 19일까지 총 749부가 회수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YPI가 함축하고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의 구성개념과 각 하위요인의 차원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YPI를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으로 예언된 요인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각 요인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점수를 토대로 대상 청소년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행행동경향이 높은 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분류된 군집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들 군집들이 다른 척도 점수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변량분석 및 군집분석을 위해 SPSS프로그램 11.0과 SLEIPNER 2.1(Bergman & EL-Khouri, 2002)을 이용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척도 및 10개의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alpha = .88$ 로 Andershed 등(2002)의 보고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하위 척도별로 보면,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Andershed 등이 보고한 것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감동, 냉담, 무책임의

표 1.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하위척도	α
부적직 매력	.69
자기과시	.75
거짓말	.72
조종	.76
무죄책감	.55
무감동	.45
냉담	.32
자극추구	.65
충동성	.62
무책임	.50
전체	.88

하위 척도들에서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PI는 이들 하위척도 그 자체 보다는 이들 하위척도들로 구성된 요인들에 있어서의 점수가 분석의 초점이 되므로(Andershed 등, 2002), 각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대인 요인에서는 $\alpha = .87$, 정서 요인에서는 $\alpha = .69$, 그리고 행동 요인에서는 $\alpha = .76$ 으로 Andershed 등(2002)이 보고한 α 계수들(.84, .74, .78)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록 세 하위척도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7개의 하위척도들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하위척도상의 점수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10개의 하위척도들이 이론적으로 예언된 세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Andershed 등(2002)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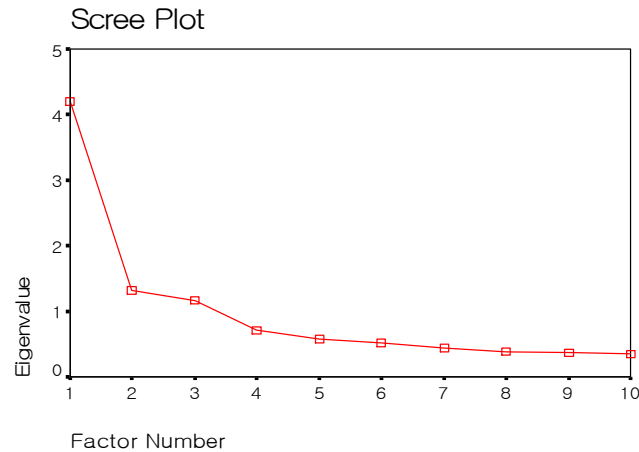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검사 결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초기 고유치 및 스크리 도표(그림 1)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이상의 고유치를 가진 요인은 모두 3개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3.70(요인 1), 1.352(요인 2), 1.301(요인 3)이었으며, 총 변량의 63.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 검토 결과, 그림 1과 같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사이에서 큰 변화가 있고 이후 비교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 요인으로 추출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promax(kappa=4) 방식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표 2는 각 하위척도별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각 요인들간 상관은 요인 1과 2가 .539, 요인 2와 3이 .353, 요인 1과 3이 .466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묶인 하위척도들을 보면, 요인 1은 부정적 매력, 자기과시, 거짓말, 조종의 네 척도들로 정신병질적 특성 중에서 주로 대인적 장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과 관련된 것이다. 요인

2는 자극추구, 충동성, 무책임의 세 척도들로 정신병질적 특성 중 주로 행동적 특성들과 관련된 것이다. 요인 3은 무죄책감, 무감동, 냉담의 세 척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병질적 특성 중 주로 정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YPI에 대한 반응이

표 2. 하위척도별 요인 부하량

하위척도	요인 1	요인 2	요인 3
부정적 매력	0.859	0.014	-0.139
자기과시	0.649	-0.126	-0.019
거짓말	0.485	0.239	-0.023
조종	0.869	-0.147	0.111
무죄책감	-0.150	-0.138	0.742
무감동	0.093	0.115	0.532
냉담	0.150	0.184	0.542
충동성	-0.088	0.864	-0.093
자극추구	0.276	0.472	0.002
무책임	-0.134	0.562	0.075

Andershed 등(2002)이 제시한 바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YPI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을 변별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앞서, YPI의 각 요인별 점수들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였다. T점수는 전체 집단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남녀별 점수 분포가 다르다면 군집분석이 이론적 구인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성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각 요인별로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인 요인과 정서 요인에서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별로 따로 군집분석이 실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군집분석의 첫 번째 절차로 먼저 이상치(outlier)들을 분리하였다. 군집분석은 극단적인 값을 갖는 사례들에 민감하므로 이들을 분리해 내어 요인별 점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Bergman, 1988). SLEIPNER에서는 두 사례간 비유사성(dissimilarity) 지수로 유클리드 거리의 평균자승(average 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활용하는데,

이 값이 .5를 초과하면 이상치로 간주한다. 표 4는 남녀별 이상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41명의 사례들에 대해 Ward의 위계적 최소변량 군집(Ward's hierarchical minimum variance clus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군집의 개수를 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은 Dåderman & Kristiansson(2004), Bergman & Magnusson(1997), 그리고 Milligan & Cooper(1985)가 제안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설명된 전체 잔차의 자승화(error sum of square, 특

표 4. 남녀별 이상치

구분	YPI 요인		
	대인	정서	행동
남	57	21	25
	42	51	37
	68	53	39
	24	21	51
	35	22	38
여	23	40	20
	62	37	56
	53	56	43

주. 여기서 제시된 점수들은 남녀별로 따로 '점수화한 것임

표 3. YPI 요인별 남녀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요인	남		여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인	44.54	9.50	42.56	8.84	2.95**
정서	30.91	5.36	28.79	5.21	5.48**
행동	35.29	6.58	34.87	5.95	0.92

** $p < .01$

주. 여기서 제시된 점수들은 각 요인들의 원점수임. 남 N=345, 여 N=404

정 군집의 수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잔차변량의 양)가 67%는 넘어야 한다. 둘째, 다음 단계의 군집 통합에 의해 발생하는 잔차의 자승화 증가량이 지나치게 크지 말아야 한다. 셋째, 두 군집을 통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군집은 이전의 군집들에 비해 동질성 계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종 군집의 수는 남자의 경우 7개, 여자

의 경우 8개이었으며, 이러한 범주화에 의해 설명된 변량은 각각 전체의 69.2%(남), 71.2%(여)이었다. 표 5는 각 군집들의 세 요인에 대한 평균 값들과 Andershed 등(2002)이 보고한 군집들의 평균값들을 남녀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Andershed 등(2002)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YPI의 모든 하위 요인들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군집 1(고-고-고)

표 5. 한국판 YPI와 원검사 YPI 남녀별 요인점수 비교

군집	한 국					스 웨 덴				
	N	대인	정서	행동	프로파일	N	대인	정서	행동	프로파일
남자	340					445				
1	40	61.0	63.3	63.0	고-고-고	44	64.3	65	65.9	고-고-고
2	44	59.7	44.6	57.1	고-중-고 ^a	74	53	48.7	58.4	중-중-고
3	32	33.6	38.6	35.5	저-저-저	75	37.4	38.6	36.7	저-저-저
4	46	58.2	53.8	45.8	고-중-중	89	58.2	57.3	51.5	고-중-중
5	72	46.8	55.5	54.3	중-중-중	163	46.1	47.9	47.1	중-중-중
6	60	44.1	41.7	50.4	중-저-중					
7	46	47.0	49.2	38.5	중-중-저					
여자	401					536				
1	42	59.1	65.6	60.4	고-고-고	50	66.5	66.7	60.9	고-고-고
2	57	52.1	50.9	62.0	중-중-고	91	57.2	52	61	중-중-고
3	34	38.7	37.5	34.4	저-저-저	157	40	42	40.2	저-저-저
4	57	51.9	58.4	47.3	중-고-중	43	50.8	64.4	47	중-고-중
5	42	47.0	37.0	53.7	중-저-중	195	50.3	48.1	50.6	중-중-중
6	64	53.0	46.7	42.3	중-중-저					
7	75	39.0	49.1	47.4	저-중-중					
8	30	67.5	48.9	53.2	고-중-중					

주. 여기서 제시된 점수들은 남녀별로 따로 T점수화한 것으로 고는 57.5 이상, 중은 42.5 이상 ~ 57.5 미만 그리고 저는 42.5 이하를 나타냄.

^a 집단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고-중-중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이 집단의 행동요인 점수가 평균과 그 이상 점수의 경계에 있고, 한국 남자 군집 4의 특성과 구분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중-고로 분류하였음.

은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을 갖는 집단이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남자 참여자의 11.7%가 그리고 여자 참여자의 10.5%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남자 참여자의 9.9%, 그리고 여자 참여자의 9.3%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적으로 비행 또는 범죄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말한다. 현재의 솔루션하에 한국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이러한 프로파일을 가진 군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여자 참여자의 14.2%가 이 집단에 속하며, 스웨덴의 경우 남녀 각각 11.9%와 17%가 이 집단에 속한다. 나머지 군집들은 정상 집단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분류된 청소년들이 정신병질적 집단을 특징짓는 것으로 알려진 성격특성 측정치들에서도 다른 두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된 군집 1에 속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에 척도(NPI)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여야 하고, KPI의 사회화 척도(So)와 사회적 정향성 척도

(MC social desirability scale)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야 한다 (Gustafson & Ritzer, 1995). 표 6은 각종속측정치들과 YPI의 세 요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변량분석결과, 남자 집단은 사회화 척도와 자기에 척도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 집단은 세 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정향성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균의 크기를 볼 때 예언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 Fisher의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s)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에 척도에서 정신병질 집단은 비행행동 집단 및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각각 $t=2.09, p<.05$ 그리고 $t=3.58, p<.01$), 비행행동 집단은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4, p>.05$). 사회화 척도에서는 정신병질 집단과 비행행동 집단 모두 정상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각각 $t=-2.26, p<.05$ 그리고 $t=-5.11, p<.01$), 평균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예언된 방향과는 달리 비행행동 집단의 평균이 정신병질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질 집단과 비행행동 집단 간

표 6. YPI 요인들 및 사회화 척도, 자기에 척도, 사회적 정향성 척도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	1	2	3	4	5	6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1	1.00						20	43.48	9.20
2	.37**	1.00					15	32.82	4.67
3	.41**	.31**	1.00				15	35.06	6.25
4	-.04	-.06	-.38**	1.00			24	14.15	4.88
5	.38**	.14**	.15**	.06	1.00		40	16.96	8.90
6	-.20**	-.12**	-.11**	.06	.20**	1.00	10	5.82	4.13

** $p<.01$

주. N=749. 척도 1=대인요인, 2=정서요인, 3=행동요인, 4=사회화척도, 5=자기에척도, 6=사회적정향성척도

표 7. 세 척도에 대한 남녀별 평균 및 표준편차, F 검증

척도	집단	남 자				여 자			
		N	평균	표준편차	F(1, 338)	N	평균	표준편차	F(2, 398)
사회화	정신병질	40	43.90	9.49		42	47.50	10.15	
	비행행동		NA		9.71**	57	43.70	9.64	14.39**
	정상	300	49.20	10.23		302	51.52	10.81	
자기애	정신병질	40	55.73	8.92		42	54.93	9.47	
	비행행동		NA		15.47**	57	50.76	11.04	6.61**
	정상	300	49.21	9.97		302	49.14	9.65	
사회적 정향성	정신병질	40	48.14	4.37		42	45.28	7.80	
	비행행동		NA		1.63	57	51.27	19.68	5.46**
	정상	300	50.3	10.56		302	50.39	7.04	

** $p < .01$

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80, p>.05$). 또한, 사회적 정향성 척도에서는 정신병질 집단은 비행행동 집단 및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각각 $t=-2.97, p<.01$ 그리고 $t=-3.13, p<.01$), 비행행동 집단은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62, p>.05$). 표 7은 이 세 척도에 대한 남녀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F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를 국내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YP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고등학생 및 보호관찰소 청소년들

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으로 예언된 요인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각 요인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점수를 토대로 대상 청소년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행행동경향이 높은 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류된 정신병질 집단 및 비행행동 집단이 이론적으로 예언된 특성을 중심으로 정상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애 척도, 사회화 척도, 그리고 사회적 정향성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청소년들에 실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한국 청소년들에게 실시한 한국어판 YPI 분석결과도 YPI가 대인, 정서, 행동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둘째, YPI의

신뢰도 분석결과 $\alpha=.88$ 로 원래의 스웨덴어판 검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3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도 .87, .69, .76으로 스웨덴어판 검사와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애초의 10개의 하위척도들 중 몇몇 척도들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YPI의 세 요인들에 대한 각 개인의 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한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는 Andershed 등(2002)이 분석한 결과에 근접하는 것이며, Gustafson과 Ritzer(1995)가 미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도 근접하는 것이다. 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들이 이론적으로 예언된 성격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신병질 집단은 더 높은 수준의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대한 관심이 낮으며, 개인 생활에서 가치의 내재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대인 요인과 정서 요인)은 없으면서 높은 정도의 일탈적 행동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대신에, 대인 요인과 행동 요인의 점수가 비교적 높지만 정서 요인은 높지 않은 집단이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여섯째,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의 남녀별 비율(prevalence)은 각각 11.7%와 10.5%로 거의 동일하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들의 비율이 여자보다 4배나 높다는 보고 (Gustafson & Ritzer, 1995)와 다

르다. 그러나 Andershed 등(2002a)이 스웨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는 일치한다. Andershed 등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스웨덴 여자 청소년들이 미국의 여자 대학생들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낮다는 점에 귀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여자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 ($M=5.83$)가 미국 ($M=3.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나타난 남녀간 동등 비율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귀인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 보다는 분석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면 Gustafson & Ritzer는 이러한 구분없이 남녀 모두 합쳐서 분석하였다. 이 경우, 남녀간 반응경향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한 쪽 성에서 더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스웨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Pethman & Erlandsson(2002)의 결과를 보면, Gustafson & Ritzer의 결과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정도 많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척도상의 평균점수를 보면 남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참여자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소유한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도 남녀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면 Gustafson & Ritzer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어판 YPI가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3가지 요인들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측정된 결과들이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타당하게 변별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YPI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모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되었다. 다만,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없이 일탈적 행동경향만 높은 집단이 하나의 군집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Moffitt(1993)가 제안한 청소년기 제한형 일탈 또는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단은 청소년기에 일탈적 행동을 보이다가도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양계민, 김의철, 2003). 따라서 이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정신병질적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다른 군집에 소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드러났다. 이론적으로 예언된 바와 같이 이 집단에 포함된 청소년들은 자기에 성향이 정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신병질 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비행행동 성향을 나타내는 사회화 척도에서 이 집단은 정상집단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정신병질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적 정향성 척도에서 이 집단은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신병질 집단 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YPI가 적어도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정신병질 집단과 비행행동 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의 특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이론적으로 예언된

일군의 집단이 군집으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여자 청소년 집단과 스웨덴 청소년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의 집단이 군집으로 드러났다. 이 집단은 대인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정서 요인에서는 평균에 가깝거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행동 요인에서 이 집단의 점수는 평균과 그 이상을 구분하는 경계 지역에 위치한다. 이 집단은 소위 이차적 정신병질(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이라고 불리는 성격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차적 정신병질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병리적 거짓말, 진실하지 않은 얇은 매력 등의 대인 요인이나 무책임성, 충동성 등의 행동 요인에서는 전형적인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과 비슷하지만 타인을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지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드물고 불안이나 죄의식 등의 사회적 정서(social emotion)를 느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ealey, 1995).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들의 존재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이 전형적 정신병질 집단과 어떤 성격 특성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Skeem et. al., 2003).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한데, 이 경우 YPI는 이들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YPI가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특성을 조사하고, 구인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YPI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정신병질적 특성들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또한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는 10개의 하위 척도들 중 몇몇 척도들은 내적 일치도가 지나치게 낮아 하나의 독립된 척도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척도 점수들을 요인분석에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척도들이 요인으로 묶여졌을 때는 내적 합치도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문항들이 요인으로 묶여졌을 때 문항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항들이 의도된 구체적(specific)인 구인(각 하위척도)에 대한 표본이라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구인(요인)의 표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하위 척도가 독립적인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보다는 이들 척도들이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보다 포괄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가 Andershed 등(2002b)의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타난 군집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특히,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단순 비행행동 집단이 군집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본 연구의 남자 참여자 중 단순 비행행동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실업계 학생들의 숫자가 적고 반면에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숫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완전한 의미의 정신병질적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일군의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이차적 정신병질 집단으로 추정되는 군집을 형성하고, 비행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수의 청소년들 중 일부가 이 군집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군집들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집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연구 참여자(피험자) 표본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되풀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가 타당화하고자 한 YPI는 임상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아직 성격형성이 청소년기에 완성되어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정신병질적 인간으로 낙인찍는 것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연구는 먼저 하위 척도들의 문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을 반복하여 그 결과를 교차 타당화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반복연구 보다는 정신병질적 특성과 이론적으로 관련되는 보다 다양한 척도를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면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양계민, 김의철 (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 63-88.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221-237.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dershed, H., Gustafson, S. B., Kerr, M., & Stattin, H. (2002). The usefulness of self-reported psychopathy-like traits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r among non-referred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383-402.
- Andershed, H., Kerr, M., Stattin, H., & Levander, S. (2002).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s: A new assessment tool. In E. Blauuw, & L. Sheridan(Eds.), *Psychopaths: Curr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131-158*, The Hague: Elsevier.
- Bergman, R., & EL-Khouri, B. (2002). SLEIPNER. *A statistical package for pattern-oriented analyses. User Manual (Version 2.1)*. Stockholm: Department of Psychology, Stockholm University, Sweden.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429-435.
- Brandt, J. R., Kennedy, W. A., Patrick, C. J., & Curtin, J. J. (1997).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a population of incarcerated adolescent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9*, 429-435.
- Campbell, M. A., Porter, S., & Santor, D. (2004). Psychopathic traits in adolescent offenders: An evaluation of criminal history,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2*, 23-47.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sby.
- Crowne, D. P., & Marlow,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Dåderman, A. M., Kristiansson, M. (2004). Psychopathy-related personality traits in male juvenile delinquents: An application of a person-oriented approach,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7*, 45-64.
- Delteg, A., & Levander, S. (1998). Twelve thousand crimes by 75 boys: A 20-year follow-up study of childhood hyperactivity.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9*, 39-57.
- Edens, J. F., Poythress, N. G., & Lilienfeld, S. O. (1999). Identifying inmates at risk for disciplinary infractions: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sychopath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7*, 435-443.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arrington, D. P. (1992). Criminal career research: Implication for crime prevention. *Studies on Crime and Prevention, 1*, 7-29.
- Forth, A. E., Hart, S. D., & Hare, R. D. (1990).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male young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2*, 342-344.
- Forth, A. E., Kosson, D. S., & Hare, R. D. (2003).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manual*. Ontario: Multi-Health Systems.
- Forth, A. E., & Tobin, F. (1995). Psychopathy and young offenders: Rates of childhood maltreatment. *Forum for Corrections Research, 7*, 20-27.
- Frick, P. J., Barry, C. T., & Bodin, S. D., (2000) Apply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 children: Implications for assessment of antisocial youth. In C. B. Gacono (Ed.), *The clinical and forensic assessment of psychopathy: A practitioner's guide* (pp. 25-54). Mahwah, NJ: Erlbaum.
- Frick, P. J., Lilienfeld, S. O., Ellis, M., Loney, B., & Silverthorn, P.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psychopathy dimension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83-392.
- Gretton, H. M., (1998). *Psychopathy and recidivism in adolescent: A ten-year retrospective follow-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ritish Columbia.
- Gretton, H. M., McBride, H. L., Hare, R. D., O'Shaughnessy, R., & Hare, R. D. (1997, June). *Sex offender or generalized offender? Psychopathy as a risk marker for violence in adolescent offenders*.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sorders of Personality, Vancouver, British Columbia.
- Gustafson, S. D. & Ritzer, D. R. (1995). The dark side of normal: A psychopathy-linked pattern called aberrant self-promo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9, 147-183.
-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yi-Health Systems.
- Hare, R. D. (1998). The Hare PCL-R: Some issue concerning its use and misus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99-119.
- Harpur, T. J., Hakstian, A. R., & Hare, R. D. (1988). Factor structur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41-747.
- Johnson, L., Cooks, D. J. (2004). Psychopathic-like trait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measurement concern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2, 103-125.
- Karpman, B. (1948). The myth of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4, 523-534.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dolescent with antisocial behavior problems.
- Mailloux, D., Forth, A. E., & Kroner, D. G. (1997). Psychopathy an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male offenders. *Psychological Report*, 80, 529-530.
- McBride, M. (1998). *Individual and familial risk factors for adolescent psychopath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ritish Columbia.
- McCord, W.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An essay on the criminal mind*. New York: Plenum.
- Mealey, L. (1995). Primary sociopathy (psychopathy) is a type, secondary is no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9, 523-540. *Journal of Clinical Child Adolescent Psychology*, 32, 66-80.
- Milligan, G. W. & Cooper, M. C. (1985). An examination of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data set. *Psychometrica*, 50, 159-179.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New York: Wiley.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urdock Hicks, M., Rogers, R., & Cashel, M. L. (2000). Predictions of violent and total

- infractions among institutionalized mal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Law*, 28, 183-190.
- Murrie, D. C., & Cornell, D. G. (2000). The Millon Adolescent Clinical Inventory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 110-125.
- Pethman, M. I., & Erlandsson, S. I., (2002). Aberrant self-promotion or subclinical psychopathy in a Swedish general popula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2, 33-5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ogers, R., Johansen, J., Chang, J. J., & Salekin, R. (1997). Predictors of adolescent psychopathy: Oppositional and conduct-disorders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Law*, 25, 261-270.
- Smith, A. M., Gacono, C. B., & Kaufman, L. (1997). A Rorschach comparison of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289-300.
- Salekin, R. T., Rogers, R., & Machin, D. (2001). Psychopathy in Youth: pursuing diagnostic cla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73-195.
- Seagrave, D. & Grisso, T. (2002). Adolescent development and measurement of juvenile psychopathy. *Law and Human Behavior*, 26, 219-239.
- Skeem, J. L. & Cauffman, E. (2003). Views of downward extension: comparing the youth versi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with the Youth Psychopathic trait Inventor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737-770.
- Skeem, J. L., Poythress, N., Edens, J. F., Lilienfeld, S. O., & Cale, E. M.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 Stattin, H. & Magnusson, D.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behavior up to age 30: Finding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in Swede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 327-346.
- Strahan, R. & Gerbasi, K. C. (1972). Short, homogeneous version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91-193.

원 고 접 수 일 : 2004.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 18
 게재 결정 일 : 2005. 2. 3

A Validation Study of 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

Dong-Min Kim Hyun-Jin Park Ji-Hun Kim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 that have originally been developed by Andershed, Kerr, Stattin, & Levander (2002). The YPI has 50 items measuring the three facets of psychopathic trai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of adolescent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YPI has adequate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alpha=.88$) and moderately related with the occurrence of various deviant behaviors. For the present study,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YPI was translated into Korean. This Korean version YPI was administered to 749 Korean adolescents (Mean age = 16.71) sampled from Seoul and Pusan metropolitan area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1) the reliability was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 .88), (2) three factors (interpersonal, affective, behavioral) were extracted as expected, (3) the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e psychopathy-like group, and (4) the clustered psychopathy-like group demonstrated the expected pattern of scores on the three criterion measures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 Socialization Scale, M-C social desirability scale). In gener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version YPI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psychopathy-like trai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n adolescents and, thus, be utilized in the future studies. However, it was highlighted that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because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three subscales of Korean version YPI were unacceptably low. In addition, the ethical problems of using the YPI as a decision-making tool for a youth was discussed.

Key Words : *psychopathy, Youth Psychopathy traits Inventory(YPI), cluster analysis*

부록 · 하위척도별 문항 내용

요인	하위척도	문항	내 용
대인	부정적 매력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유혹하고 배후시키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3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호감 가는 행동을 자주 한다
		14	나에게는 나의 매력과 미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이 있다
		38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나는 나의 미소와 매력을 사용한다
		27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물을 때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그럴 듯한 답변을 해준다
	자기 과시	10	나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이다
		41	나는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유명 인물이 될 운명이다
		19	나는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30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거짓말	43	나는 때때로 별 이유없이 거짓말을 한다	
	24	때때로 나는 다른 이유없이 재미로 거짓말을 한다	
	50	너무 심한 거짓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47	내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풍취를 더하고 과장하기 좋아한다	
	7	이야기를 지어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	
	조종	15	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거짓말을 믿게 하는데 능숙하다
31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속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11			
46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믿게 할 수 있다	
2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부록 · 계 속

요인	하위척도	문항	내 용
정서	무 죄책감	4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
		8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낄만한 일에 대해 나는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28	사람들이 내 잘못을 찾아내면 나는 죄책감보다는 화가 난다
		48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도 좀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무감동	2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36	다른 사람들이 대개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25	긴장하고 걱정하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이다
		45	내가 감정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보다 적다
		39	나는 사람들이 TV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냉담	12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우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한다
		17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므로 그들을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35	TV나 영화의 슬픈 장면을 보면 슬퍼지거나 감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r)
		49	다른 사람들이 울거나 슬퍼하는 것을 보면 대개 나도 슬퍼진다(r)
		23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r)
행동	자극 추구	1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22	나는 스릴있는 일을 좋아한다
		42	나는 불법적인 또는 금지된 일이라도, 흥분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
		29	나는 같은 것을 반복하면 쉽게 지겨워한다
		4	변화가 없으면 나는 빨리 지겨워진다
	충동성	3	나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곧바로 써버리기를 좋아한다
		26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나는 그 재미있는 일을 한다
		32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8	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9	나는 스스로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무책임	5	나는 학교에 결석하거나 직장에 결근한 경우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을 것이다
		40	학교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13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받으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즐길 것이다
		16	나는 학교나 직장에 자주 늦는다
		34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을 분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r)은 역분향